

추 도 사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지난 1700여 년 동안 때로는 크게 성하고, 때로는 쇠퇴하기도 하였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마치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불가의 수행가풍이 그 명맥마저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맥을 다시 잇고 선풍을 크게 진작시켜 오늘의 면모를 갖추게 하신 분이 바로 경허선사이십니다.

스님은 청계사에서 계허(桂虛) 스님 문하에 출가한 후, 다시 당대의 강백인 만화(萬化) 스님의 문하에서 불교 경론과 유가를 비롯한 제자백가서를 섭렵하였습니다. 이러한 섭없는 구도열은 만화스님에 이어 동학사의 강사로 추대되게 하였고 수많은 학인을 배출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주석하셨던 충남 일대는 물론 삼보사찰을 비롯하여 전국을 종횡무진 누비며 수행가풍을 바로 세우는데 진력하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선원이 열리고, 납자(衲子)들의 안목(眼目)이 열리니, 곳곳마다 도인들로 가득하고, 걸음걸음마다 해탈의 향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코에 구멍이 없는 소’라는 말에 크게 깨달음을 얻으니, 이 대오견성이야말로 오늘의 한국불교를 밝히는 새벽빛이라 하겠습니다. 스님의 문하에서는 수월, 혜월, 만공, 한암 등 당대의 선지식들이 배출되니, 이 땅의 범맥은 다시 이어지고 안거의 전통이 되살아나 청정한 수행이 지속되었습니다.

스님의 발길은 불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생사를 타파하기 위한 목숨을 건 용맹정진에 들게 했던 것은 역병으로 신음하던 민생들이었던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 나라 잃은 슬픔에 찬 민족은 스님께서 항상 보살피야했던 중생이었습니다. 시정 사람들과 격의없이 어울리거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중생세간에서 노닐며 중생 곁에서 늘 함께 하였습니다.

출가 수행에서는 진제(眞諦)를 나타내고 세간에서는 속제(俗諦)를 드러내니 진속이 둘이 아닌 진속불이의 경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파격과 기행으로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였지만 이는 격외(格外)의 도리를 알리기 위한 방편이자 평생 안주하기를 거부한 참된 무애행(無碍行)의 발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불교중흥조인 경허선사의 열반 100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경허스님의 무엇이 한국불교를 ‘중흥’시켰는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경허스님은 참선곡, 중노릇 하는 법, 심우송 등 수많은 글 속에서 수행자가 가야할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송곳으로 자신을 찢러가며 수행하는 정진력이며, 언제나 중생과 함께 하는 동체대비의 실천이며, 수행을 통해 평등무차별하여 무장무애한 대자유인의 삶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단이 안팎으로 자성과 쇄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경허스님의 열반 100주기를 맞게 된 것은 후학들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스님의 선업을 기리는 열반 100주기를 맞아 우리가 가야할 길을 새롭게 모색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맑은 차를 큰스님의 각령전에 올립니다.

불기2556(2012)년 6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